

오이총채벌레(*Thrips palmi*) 밀도 수준에 따른 애꽃노린재(*Orius strigicollis*)의 방사효과

김도익, 박종대, 김선곤, 김규진¹, 김상철

전남농업기술원 시험연구국, ¹전남대학교 농생물학과

오이 주산지인 구례 오이시험장과 전남농업기술원 시험포장에서 봄재배는 각각 6월 9일, 4월 24일에, 가을재배는 8월 20일, 22일에 정식하고 오이총채벌레가 30주에 5마리(소발생구), 30마리(중발생구), 100마리(대발생구) 발생할 때 애꽃노린재를 120마리씩 방사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례 지역의 오이 봄재배에서 오이총채벌레가 소량 발생한 경우 천적인 애꽃노린재가 증식하지 않았으며 대발생한 경우 천적의 밀도 증가량이 오이총채벌레 밀도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여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하였다. 중발생구의 경우 천적을 초기부터 억제하여 방사 5주째에는 91.7%의 방제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경향은 전남농업기술원 포장에서도 유사하여 중발생구의 방제효과가 91.5%로 나타났다.

구례지역의 가을재배에서 10월 상순까지는 천적의 밀도도 유지되면서 오이총채벌레를 억제하여 이시기의 중발생구 방제가가 76.6%였으나 이후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 억제하지 못하였다. 본원에서도 10월 중순의 중발생구 방제가가 74.6%였으나 이후 밀도 억제가 곤란하였다.